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 보험사, 지방정부와 홍수피해 공동대책 협정

- 영국의 보험산업은 웨일즈정부와 홍수피해 공동대책 협정을 체결하고, 향후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.
 - 영국보험협회(ABI: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)는 웨일즈정부와 공동으로 홍수리스크관리 개선 및 홍수피해 복구 신속화에 협조하는(협정내용은 매년 갱신) 협정을 맺음.
 - 금번 협정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폭우 가능성 증가에 따라 특히, 웨일즈지방의 시설물 중 1/6이 홍수피해 위험에 처해 있고, 약 60만 명이 홍수피해 예상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다는 발표 후 취해지게 됨.
- ABI는 단기적으로는 광범위한 홍수피해를 감안하여 홍수피해 가능성을 주지시켜 피해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, 홍수피해 발생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처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복구의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힘.
 - 금년 기상상황은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의 제방 및 배수시설이 무용지물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최악의 홍수사태를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.
 - 사전적인 홍수리스크관리와 더불어 보험사들은 홍수피해보험금 지급요청에 대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지역의 복구 시간을 단축하기로 함.
- 또한, ABI와 웨일즈정부는 25년 장기대책으로 가정 및 중소기업 대상의 홍수피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며, 저소득층 대상의 보험상품 개발에도 힘쓰기로 함.
 - 홍수피해 담보 보험을 가능한 한 민영보험에 의해 운용할 수 있는 장기대책을 정부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, 현재의 담보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함.
 - 정부는 장기적으로 홍수피해 예상 지역의 부적절한 개발을 억제하며, 이들 지역의 피해 예상을 사전에 주지시키기로 함.

(BBC News, 7/11)